

정비석의 〈城隍堂〉에 나타난 生態的 認識 研究

차 봉준*

목 차

I. 서론

II. 본론

1. 자연 친화적 공간과 생태적 인식

2. 무속적 사유와 생태적 인식

3. 건강한 '성적 이미지'와 생태적 인식

III.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I. 서론

인간이 자연과 공존의 길을 모색하지 않을 때 자연의 파괴는 점점 가속화될 것이고, 더 나아가 인류의 종말이 필연적으로 도래할 것이라는 경고는 이미 오래 전부터

* 숭실대 인문대 강사

1) 독일 태생의 생물학자이며 철학자인 한스 모어(Hans Mohr)는 “만약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의 자연적 본성’에 따라 살아간다면, 우리는 머지 않은 시기에 필연적으로 멸종해 버릴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이것은 인류의 현 상황에 대한 진단이자, 인류의 미래에 대한 의미 있는 경고이다. H. Mohr, Natur und Moral: Ethik in der Biologie, Darmstadt, 1967, 65면. 김성진, 「철학적 인간학의 생태학적 과제」, 『생태문제와 인문학적 상상력』, 나남출판, 1999, 37면.

의 일이다.¹⁾ 우리가 자연을 지배와 정복의 대상으로 인식하여 무분별한 개발과 이용을 자제하지 못한 결과가 지금 지구촌 곳곳에서 이상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목도할 때 이러한 경고의 엄중함이 더욱 현실감 있게 다가온다. 그렇다면 우리로 하여금 이 지경에 이르도록 자연과의 간극을 벌여놓은 근본적 원인을 어디에서 찾아야 할 것인가²⁾ 여러 방면에서의 다양한 진단이 가능하겠지만 대다수의 생태론자들이 공통적으로 제기하는 원인에는 인간중심적 사고라는 공통분모가 위치하고 있다. 근대 이후 서구의 중심적 사고로 자리잡기 시작한 인간중심적 사고는 그 교만의 바벨탑을 더 한층 높여감으로써 오늘날의 생태적 위기를 초래했으며 급기야 인류 문명의 파멸이라는 불안을 고조시키는 증폭제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이러한 경고에 귀기울이기 시작한 선각적인 사람들은 '환경운동' 혹은 '생태운동'을 주창하며 인간과 자연의 화해와 공존을 모색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그 결과 환경운동은 환경개선이나 의식계몽과 같은 단순한 시민운동의 차원을 넘어 점점 다양한 분야로 확산되면서 그 인식의 토대를 확고히 하고 있다. 특히 인문학에서의 성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 열기는 창작과 비평의 범주로까지 번지고 있다.

생태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이론적 토대를 제공하고 있는 철학적 담론은 노르웨이 철학자인 아르네 네스(Arne Naess)에 의해 시작되었다. 그는 1972년 『표층 생태운동과 장기적인 심층 생태운동』(The Shallow and the Deep, Long-range Ecology Movement)이라는 논문에서 이 무렵의 환경운동을 크게 '표층 생태학' (shallow ecology)과 '심층 생태학' (deep ecology)으로 구분하여 생태학의 특성을 규정짓고

2) 자연에 대한 반(反)생태적 인식의 원인을 기독교적 세계관으로 지적하는 경향이 많다. 즉 기독교는 모든 생명체의 중심을 인간이라고 보고, 인간의 이기적 욕망 충족을 위해 자연을 다스리고 정복하도록 신으로부터 허용 받았음을 역설하고 있다. 창세기 1장 28절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에서 '정복하라', '다스리라'는 표현이 '인간의 욕구에 따라 편리한 대로 이용하라'는 뜻으로 해석됨으로써 기독교적 세계관이 과학기술 발달의 길을 열어주었으며, 그 결과 생태계 파괴의 단초를 제공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 알란 와츠(Alan W. Watts)는 기독교가 본래는 반자연적 종교가 아니었지만 도시종교로 성장하면서 자연과 멀어지기 시작했다고 지적한다. 또한 린 화이트 2세(L. White, Jr.)도 그리스도교적 자연개념이 중세 라틴세계에서 기술의 발전을 촉진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러한 자연관을 지나치게 추구한 결과 오늘날과 같은 생태학적 위기가 도래했다고 지적함으로써 기독교가 생태계 파괴에 미친 영향을 비판하고 있다. Alan W. Watts, *Nature, Man and Woman*, New York:Random House/Vintage, 25 ~ 53면. L. White, Jr., "The Historical Roots of Our Ecologic Crisis", *Science*, Vol.155, 1967, 1203 ~ 1207면.

있다. 그에 따르면 표층 생태학이란 제도권의 생태학으로서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으며, 더구나 그 동기가 지극히 인간중심적이라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한계성을 지닌 이론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네스는 인간의 복지 증진을 위한 수단으로 자연을 이용하지는 표층 생태학자들을 향해 나쁘게 말하면 이기주의자요, 좋게 말하면 기껏해야 환경개혁론에 지나지 않는다며 비판을 가한다. 반면 심층 생태학은 환경문제를 임시방편으로 해결하려는 표층 생태학과는 달리 '장기적인' 안목으로 접근하고 있으며, 문제의 원인을 근원적으로 파헤치려는 운동이라는 측면에서 긍정하고 있다. 때문에 심층 생태학이야말로 오늘날의 인류가 직면해 있는 환경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철학이라고 주장한다.³⁾

문제에 대한 근원적 모색을 시도하는 심층 생태학적 사유는 필연적으로 문학 생태학과 밀접한 관련을 지니게 된다. 즉 인식의 중심을 자아에서 사물 중심으로 전환시킨 심층 생태학으로부터 그 사유 방식을 빌어온 문학 생태학은 생태시, 생태소설, 생태비평, 생태페미니즘 등의 다양한 개념으로 세분화되고 있으며 이들은 공통적으로 생태적 인식에 바탕을 두고 있다. 여기서 생태적 인식이란 "유기체가 '서로서로 얽혀 있으며', 바로 그렇기 때문에 유기체를 개별적으로 고찰해서는 안 되고 '환경과 연관지어' 총체적으로 파악하는 사유태도"⁴⁾를 일컫는다. 즉 인간을 다른 생물, 무생물들과 함께 지구의 생태계를 이루는 하나의 유기적 생물체로 간주하고, 그렇기 때문에 인간과 환경은 개별적 독립체가 아니라 상호 관련을 맺고 있는 공생적 관계임을 강조한다. 따라서 작가의 생태적 인식 혹은 텍스트의 생태 지향성에 초점을 두고 있는 문학 생태학은 단순히 피상적으로 드러나는 생태계 파괴 현상뿐만 아니라 이러한 문제를 야기한 서구의 물질문명과 인간중심주의, 그리고 인간의 무의식적인 욕망까지도 관심의 대상으로 삼는 보다 넓은 외연을 지니게 된다.

본고는 정비석의 〈성황당〉에 나타나는 생태적 인식을 밝혀나감으로써 문학 생태학의 지평을 넓힘에 목적을 두고 있다. 물론 이 소설은 표면적으로 환경문제를 다루거나, 생태계 파괴의 심각성을 고발하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환경과 생태계의 파괴를 직접적이며 사실적으로 서술하는 문학" 혹은 "생태적 인식을 바탕으로 생태계의 현 상황을 사실적으로 그려주면서 동시에 그 파괴의 원인에 대해 성찰하고 있는

3) 김옥동, 『문학생태학을 위하여』, 민음사, 1998, 367 ~ 369면.

4) 김용민, 『생태사회를 위한 문학』, 『문예중앙』, 2000. 7, 160면.

작품"이라는 협의의 개념으로 생태문학을 범주화한다면 <성황당>에 대한 문학 생태학적 고찰은 논의 자체가 불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자연이나 환경이 문학 속에 직접 드러나지는 않지만 생태계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루고 있는 작품"⁵⁾ 혹은 "생태 위기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보여주지 않더라도 그 위기의 극복에 중요한 가치를 내포하고 있는 문학"⁶⁾이라는 보다 광의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성황당>을 비롯한 여타의 작품들을 통해서도 생태적 인식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고, 그만큼 문학 생태학의 지평도 넓어질 수 있을 것이다.

정비석의 <성황당>은 두메 산골에서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순이와 현보를 한 축으로 하고 그에 반하는 김주사와 칠성이의 파괴적 본성을 또 하나의 축으로 삼아 인간의 원시적 애정 세계를 그리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서사 구조를 형상화함에 있어서 유기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자연 친화적 공간은 세속에 때문지 않은 두 인물의 삶과 조응함으로써 생태적 인식의 단초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이들 삶의 기저를 이루고 있는 무속적 사유는 현대적 생태 문제의 탈출구를 동양적 인식에서 찾으려하는 맥락⁷⁾에서 동양적 생태학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방편이 될 것이다.

5) 김용민은 생태적 인식의 깊이에 따라 생태문학을 범주화하고 있다. 본문에 소개한 세 가지 유형에 덧붙여 '폐미 니즘적 관점에서 생태적 문제를 바라보고 성찰하는 작품'과 '생태계의 현 상황을 비판하는 것을 넘어서서 미래의 생태사회를 꿈꾸고 모색하는 작품'까지 모두 다섯 가지로 유형화하고 있다. 위의 책, 166-168면.

6) 이남호, 『녹색을 위한 문학』, 민음사, 1998

7) 오늘날의 생태적 위기를 초래한 원인을 서양정신의 이원론적 세계관으로 진단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동양적 인식 사유를 제기하는 일련의 주장들은 주목할만하다. 이 주장들의 공통적인 목소리는 동양정신이야말로 인간과 자연의 대립적 관계를 지양하고 주체와 타자, 즉 인간과 자연을 하나로 보는 일원론적 사고 속에서 자연과의 조화를 추구하는 건전한 대안으로 보는 것이다. 이 부분의 몇몇 주목할 글들은 다음과 같다.

고영석, 『불교의 생태관-연기(緣起)와 자비의 생태학』, 김성진 외, 『생태문제와 인문학적 상상력』, 나남출판, 1999.

김영석, 『도와 생태적 상상력』, 국학자료원, 2000.

김지하, 『접화군생(接化群生):인문학과 생태학』, 경상대학교 인문학연구소, 『인문학과 생태학』, 백의, 2001.

김희경, 『한국의 풍수지리 사상과 심층 생태학』, 한국기호학회, 『생태주의와 기호학』, 문학과지성사, 2001.

박이문, 『문명의 미래와 생태학적 세계관』, 당대, 2000.

박희병, 『한국의 생태사상』, 돌베개, 2002.

손병욱, 『동양의 자연관 고찰』, 경상대학교 인문학연구소, 『인문학과 생태학』, 백의, 2001.

이효걸, 『동양철학의 환경윤리적 태도』, 김성진 외, 『생태문제와 인문학적 상상력』, 나남출판, 1999.

임재해, 『민속문화의 생태학적 인식』, 당대, 2002.

한국 불교환경 교육원 편, 『동양 사상과 환경 문제』, 모색, 1996.

한편 순이와 현보가 자연 속에서 어우러진 ‘성적 모티브’도 생명력 있는 자연의 이미지와 조화되어 건강한 ‘성적 이미지’로 구현되고 있다. 따라서 텍스트에 환경 고발적 태도의 있고 없음이라는 피상적 차원을 넘어 자연 친화적 공간과 인간의 어울림, 자연의 존재 가치를 인정하는 동양적 사유, 그리고 생성의 이미지로 작용하는 건강한 ‘성적 이미지’의 구현이라는 인식들을 종합할 때 이 소설을 생태문학의 범주에 포함시키는 것은 전혀 불가능한 일이 아닐 것이다.

II. 본론

1. 자연 친화적 공간과 생태적 인식

소설에서 공간이 차지하는 비중은 더 이상의 언급이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막중하다. 시간과 더불어 소설 구성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공간은 어떤 면에서 시간보다도 더 우위를 차지할 정도로 그 중요성이 높게 평가되고 있다. 가스통 바슐라르(Gaston Bachelard)는 “우리들은 때로 시간 속에서 스스로를 알아본다고 하지만, 기실 그것은 우리들의 존재가 안정되게 자리잡은 공간들 가운데서 일련의 정착점들을 알아보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⁸⁾고 말하며, 또한 “우리들이 오랜 머무름에 의해 구체화된, 지속의 아름다운 화석들을 발견하는 것은 공간에 의해서, 공간 가운데서”⁹⁾라며 공간의 비중에 대해 누차 강조한다. 바슐라르의 주장은 공간 속에서 활약하며 공간과 더불어 존재하는, 즉 공간과 실존적 관계를 유지하는 소설 속 인물의 연관 속에서 그 의미가 한층 더해진다.¹⁰⁾

한편 인물이 활동하는 무대로서의 공간(space)은 엄밀한 의미에서 공간성(spatiality)과 구별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공간성은 텍스트 독서의 비평적 방법으로 조셉 프랭크(Joseph Frank)에 의해 주목되기 시작했다. 프랭크가 말하는 공간성이란 “묘사적인 쓰기가 아니라 언어 본래의 시간적 의미를 부정하고, 사물의 연

8) Bachelard, Gaston, *The Poetics of Space*, 광광수 역, 『공간의 시학』, 민음사, 1990, 120면.

9) 위의 책, 122면.

10) 인간과 공간의 관계를 실존적 관계로 규정하고, “실존적인 인간이란 공간적 의미를 지닌 자이고, 인간이 실존한다는 것은 공간적으로 ‘산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이경희의 주장에서도 소설에서 공간이 차지하는 의미의 중요성이 잘 나타난다. 한국현대소설연구회 편, 『현대소설론』, 평민사, 1995, 185면.

속으로서보다는 시간의 한 순간에서 하나의 전체적인 것으로서 작품 이해를 시키기 위한 작가의 시도에서 나온 것”¹¹⁾을 말한다. 이 경우 공간의 인식은 주어진 시간에 동시적으로 이루어지는 여러 개의 공간에 대한 인식을 의미하며, 또한 동시적으로 관계될 수 없는 행위들을 의미한다. 반면 공간은 인물과 그 인물의 모든 행위를 포함하는 구체적이면서도 묘사적인 것을 의미하며, 시간적 의미에 충실한 장면, 장소, 배경, 환경, 분위기와 같은 의미를 내포한다. 따라서 본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성황당〉의 자연 친화적 공간이란 소설의 인물과 실존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아울러 작가의 세계관이 내포되어 있는 묘사적 ‘공간’을 의미함이다.

〈성황당〉은 세속적 요소가 전혀 개입될 수 없는 절대 순수의 공간을 배경으로 자연과 완전한 조응을 이루고 살아가는 순이와 현보를 중심으로 묘사하고 있다. “아침해가 앞산 위에 뒀나보다 하면, 벌써 뒷산에서는 해가 저물기 시작”(320면)¹²⁾ 하는 천마령(天摩嶺)에서 순이와 현보는 자연의 한 부분이 되어 살아가고 있다. ‘천마령’은 이름 그대로 하늘과 가장 가까이 위치하고 있는 공간이다. 따라서 모략과 사육이 횡행하는 세속적 공간이 아니라 ‘스스로 그러한’ 채로의 삶이 향유되는 동양적 사유의 공간이다. 또한 인간이 주체가 되어 자연을 지배하고 거스르는 반생태적 공간이 아니라, 인간이 자연의 한 배경으로 동화되고 자연과 인간을 굳이 분리해 낼 수 없는 지극히 생태적인 공간이다. 그것은 다름 아닌 지고지순의 하늘과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하늘을 이고 살아가는데 감히 어떻게 자연을 거스르는 불경을 범할 수 있겠는가. 따라서 〈성황당〉은 소설의 공간 설정부터가 자연과 인간을 분리하여 서열화하지 않는, 즉 자연과 인간이 상호 유기적 긴밀성을 통해 공생하는 생태적 인식의 장으로 설정되어 있다.

할미꽃, 앓은뱅이, 진달래가 한물 지나고 도라지꽃, 제비꽃, 학이꽃, 범부채, 물구지, 개나라……가 먼저들 다투어 필 무렵이면 스러졌던 잔디밭에서도 새싹이 머리를 들고, 그러노라면 풀밭에서는 민충이, 식세리, 귀뚜라미가 노래를 부른다.

토끼가 춤을 추고, 여우 노루가 양지쪽에서 낮잠을 자는 것도 그런 때이다. (329면)

11) 위의 책, 186면.

12) 정비석, 『성황당』, 『한국현대대표소설선』5, 창작과비평사, 1996. 이후 거론되는 인용문은 이 책의 쪽수를 참조한 것임.

천마령은 원시적 공간이다. 아직까지 인간의 손때가 묻어나지 않은 곳, 너무나 깊고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기에 세속의 손길이 아직도 미치지 않은 곳이 바로 천마령이다. 이곳 천마령에는 수많은 꽃들이 계절의 순환에 맞추어 피고 지기를 반복하고, 또한 온갖 곤충, 동물이 인간과 어우러진 원시적이고 생태적인 공간이다. 인용문은 산 속의 여름날에 대한 정경이다. 한가로운 산 속의 여름날은 하루가 다르게 나뭇잎이 무성하게 변해가고 각색 새들의 노랫소리가 울려 퍼지면서 산사람들의 마음을 평화롭게 만들어간다. 이러한 공간에서 인간이기를 주장한다는 것은 하나의 汚點에 지나지 않는다. 이 곳에서는 자연을 지배하고 조정하는 우월적 지위를 보장받는 인간이기는 포기되어야 한다. 오히려 인간 스스로가 자연의 한 배경으로 無化됨으로써 존재의 의미를 지니게 된다. 자연의 주인이기를 주장하지 않으며, 따라서 이들과 주종의 관계로서가 아니라 상보적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자연이 인간이고, 인간이 바로 자연일 수 있는 상호 유기적인 공간이 이 텍스트의 인물들이 활동하는 공간이다.

이런 맥락에서 보자면 순이와 현보도 그 자체 독립적 인간이기 이전에 자연의 필수불가결적 구성 요소로 기능한다. 다시 말해서 천마령이 생태적 이미지의 공간적 성격을 획득할 수 있게 된 것은 공간 자체의 속성이라기 보다는 인간과의 유기적 관계에서 파급된 효과로 이해되어야 한다. 따라서 천마령은 순이와 현보가 존재함으로써 더욱 생태적 이미지가 두드러질 수 있는 것이지 이들을 배제하고서는 그 자체 생태적 완결성은 결여된다.

전나무, 잣나무, 박달나무, 물푸레나무, 떡갈나무, 나무…… 아름답리 나무, 나무들이 기운차게 활기를 짝 짝 뻗고 별 곁들 서 있는 숲속을 거닐면서 현보는 다시 빙그레 웃었다.

무성한 나무, 나무! 그것은 얼마나 친근한 현보의 벗이었으리요!

순이도 떼어버리고는 살 수 없을 만큼 사랑스럽다. 그러나 현보에게는 이 나무들도 순이보다 조금도 못지않게 사랑스러웠다.

봄이 오면 나뭇잎이 싱싱하게 생겨나고, 그래야만 현보의 마음에도 봄이 오는 것이었다. 친근하기로 말하자면 산은 말할 필요조차 없다. 온갖 나무를 키워주고, 온갖 풀을 키워주는 것이 산이 아니더냐?

현보를 나이준 것도 산이었고, 현보를 먹여살리는 것도 산이었고, 현보의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돌아간 곳도 역시 산이 아니더냐?

현보는 산 없는 곳에서는 하루도 살지 못할 것 같았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이에 어느덧 현보는 숲가마에 다다랐다. (327면)

인용문은 숲가마에서 숲을 구위 생계를 꾸려가고 있는 현보의 대자연적 태도가 드러난 부분이다. 즉 그가 얼마나 나무를 친근히 여기고 산을 소중히 여기는가에 대한 명확한 태도가 드러난다. 물론 나무를 친근히 여기는 현보의 태도를 자신의 생계 유지에 따른 타산적 인식으로 평가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현보는 자연과의 유기적 관계를 지속하는 생태적 인물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오히려 자연을 자의적으로 이용하고 훼손하는 반생태적 인물로 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인물의 생태적 인식에 대한 평가를 자연을 경제적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느냐 아니냐의 피상적 행위만으로 파악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인간 삶의 영위 자체가 자연에 대한 이용을 전적으로 배제하고서는 불가능한 것이라는 점을 전제한다면, 생태적 인식에 대한 올바른 평가는 인물의 내면에 자리잡고 있는 자연 인식의 진정성 여부로 가려져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현보의 자연 인식 내지는 삶의 자세란 너무나도 자연 친화적이며 생태적이라고 간주할 수 있다. 우선 그는 자신이 유일하게 사랑하는 대상인 순이만큼이나 나무를 사랑하고 있다. 도저히 ‘떼어버리고는 살 수 없는’ 순이보다 ‘조금도 못지 않게 사랑스러운’ 것이 나무들이다. 비단 나무들이 돈을 벌어드주는 생계의 수단이기 때문에 이토록 사랑스럽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현보의 내면에는 인간이나 자연이나 그 어느 것에 가치의 輕重을 두지 않는, 즉 인간이 자연이며 자연이 인간이라는 생태적 인식이 體化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온갖 나무를 키워주고, 온갖 풀을 키워주는’ 산의 이미지는 단순히 친근한 대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의 시작이자 끝을 의미한다. 그는 산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다. 산은 그를 나아준 곳이며, 그를 먹여 살리는 곳이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그의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돌아간 곳’이라는 점이다. 산, 즉 자연은 현보에게 있어 단순히 삶의 터전이라는 의미를 넘어서, 영원히 회귀해야 할 母性을 의미한다. 때문에 어머니와 같은 존재 가치를 지니고 있는 자연에 대한 불경스러운 행위란 감히 상상할 수조차 없는 것이며, 따라서 그것은 영원한 본향으로서의 친화적 공간 의미를 지니게 된다.

해는 중낮이 되었다.

별 겹뿔 뺨뺨이 서 있는 나무 숲속도 흰히 밝았다. 겹겹이 쌓인 숲속에서는 줄줄줄
얼음 녹은 물이 흐르고 있다.

은 산은 적막 속에 잠겼다. 산새도 울지 않았다. 다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종달새 소
리가 들러올 뿐이었고, 그것마저 구름 속에 잠겨지자, 생각난 듯이 미라부리가 한 곡
조 부르면서 멀리로 날아갈 뿐이었다. 순이는 나물을 캐다 말고 미라부리 사라진 먼하
늘을 고요히 우러러보고 있었다. 그런 때에는 순이도 자연의 한 부분에 지나지 않았
다. (328면)

자연적 공간에 대한 친화적 인식은 〈성황당〉의 또 다른 인물인 순이에게서도 지
속적으로 나타난다. 현보와 마찬가지로 순이도 자연의 한 부분으로 완전히 동화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 산과 하늘의 어울림, 그리고 그 하늘로 날아오르는 미라부리를
우러러보고 서 있는 순이의 자태는 한 폭의 동양화를 연상케 한다. 화면의 전면에
부각되지는 않지만 그 자체 화면에서 배제될 수 없는 자기 완결성을 지닌 존재가 다
름 아닌 순이인 것이다. 순이는 화면의 전면에 부각되지 않는, 오히려 다른 피사체
와 더불어 철저히 배경으로 만족하고 있다. 그 자신이 중심이 되지 않음으로써 오히
려 중심의 위치를 굳건히 할 수 있는 역설적 지위를 우리는 이 소설의 인물들에게서
발견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과연 이 소설이 어떻게 생태 소설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는 가라는 앞서의 문제제기를 되짚어본다. 거듭 말하거니와 이 소설에는 환경
과 생태계의 파괴에 대한 직접적이고 사실적인 언급은 찾아 볼 수 없다. 아울러 생
태계의 현 상황에 대한 묘사와 함께 그 원인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도 표면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태 주의적 관점에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
것은 소설의 심층에 생태적 인식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생태 의식을 일깨우
고 생태학적 세계관을 보여주는 문학이라면 일단 문학 생태학의 테두리에 넣을 수
있다”¹³⁾는 김옥동의 주장을 빌리자면 〈성황당〉의 자연적 공간과 그 자연 속에서
일체가 되어 살아 숨쉬고 있는 인물들에게서 우리는 분명 생태적 조화로움의 가치
를 발견할 수 있고, 때문에 지속적인 생태 환경의 보존이라는 중요한 생태학적 인식

13) 김옥동, 앞의 글, 32면.

을 획득하게 된다. 따라서 이 소설은 환경 파괴의 실상을 고발함으로써 독자들로 하여금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표층적 생태 소설이 아니라, 오히려 그 형태를 온전히 유지하고 있는 건강한 환경의 묘사를 통한 에코토피아의 가시화를 통해 생태적 인식을 유발하는 심층 생태학적 소설로 간주할 수 있을 것이다.

2. 무속적 사유와 생태적 인식

대부분의 생태학자들은 오늘날의 생태 위기를 초래한 원인으로 서양적 세계관을 거론하기에 주저하지 않는다. 서양의 '도구적 자연관'은 이성적 존재로서의 인간과 그 밖의 존재로서의 자연의 대립에 바탕을 둔 이원론적 형이상학을 전제로 하는 인간중심주의적 세계관이다. 때문에 인간의 욕구 충족을 위한 자연의 지배와 약탈을 조장하고 정당화했으며, 이는 필연적으로 과학 기술에 의한 생태의 파괴를 가속화 시키기에 이르렀다.

서양적 세계관이 초래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그 반대에 서 있는 동양적 세계관, 즉 동양적 자연관에 관심이 모아지기 시작한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귀결인 듯싶다. 한마디로 동양적 자연관은 인간과 자연 사이의 친화성을 표방한다. 친화적 자연관은 자연에 대한 찬양, 경외심, 혹은 자연의 영원한 생성력에 대한 신비감 등으로 나타남으로써 자연을 도구적으로 이용하려는 서구적 가치를 지양한다. 결국 동양적 자연관이란 서양의 지배적 형이상학인 이원론에 대해 일원론적 사고를 지향함이며, 서양의 인간중심적 가치에 반해 자연중심적 가치를 지향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자연에 대한 인간의 우월적 태도란 동양적 자연관에서는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러한 점이 오늘날의 생태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동양적 자연관에 주목하는 중요한 원인일 것이다.

정비석의 〈성황당〉은 동양정신의 하나인 무속적 사유가 소설의 밑바탕에 깔려 있다. 무속적 사유란 동양적 자연관인 자연 친화적 특성, 즉 자연에 대한 경외심이나 자연의 영원한 생성력에 대한 신비감 등을 엿볼 수 있는 생태적 사유이다. 일반적으로 동양의 무속신앙은 生氣信仰(animatism)과 精靈信仰(animism)으로 대별된다. 생기신앙은 가장 소박한 자연물 숭배로서 모든 자연물에 생식력과 같은 생기가 있다는 전제 아래, 이들 생기를 바탕으로 인간의 생명력을 강화하고 주술적 힘을 얻고자 하는 자연물신앙이다. 반면 정령신앙은 영혼이나 생명을 뜻하는 정령이 사람

의 몸에만 깃들어 있는 것이 아니라 생물과 무생물 등 만물에 전반적으로 내재되어 있으며, 또 물체나 몸으로부터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존재할 수 있다고 보는 신앙관이다.¹⁴⁾ 그렇다면 우리의 민속에서 오래도록 그 뿌리를 내려오고 있는 성황당에 대한 신앙은 정령신앙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예로부터 성황당을 정령이 깃든 신성한 존재로 인식하고 거기에 자신의 소망을 빌어왔다는 사실은 조선조 임제 권필의 시 <城隍賦>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임제의 <城隍賦>에는 성황당이 길가에 위치하여 숲으로 이루어졌으며 신목이 있고, 지전을 걸어두었으며, 오기는 길손들이 무엇인가 소원을 빌면서 신령하게 모셨다는 사실이 나타나고 있다.¹⁵⁾ 이렇게 볼 때, 우리 민속의 오랜 역사적 토대를 형성하고 있는 성황신앙은 자연물에 정령이 내재되어 있음을 전제로 거기에 인간의 기복을 의탁하고 있는 신앙관임을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정비석의 <성황당>에서도 순이와 현보의 삶 전반을 강하게 지배하고 있는 정령신앙을 확인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이러한 사유가 자연의 생명력을 인정하고 자연에 대한 인간의 지배적 위치를 주장하지 않는 생태적 인식에 근거한 것임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는 참말 별안간에 하늘에 올라간 것만치나 기뻐다. 이런 신은 아무리 돈 많은 사람이라도 함부로 신을 것이 못 되어 보였다. 아랫마을에도 흰고무신을 신은 여편네라고는 구장택 한 사람뿐인 것만 보아도 알 것이라고, 순이는 등잔을 끄고 그만 자리라고 자리에 누웠다가도 다시 불을 켜고는 고무신을 어루만져본다. 그리고 이런 모든 것이 성황님의 은덕이라고 믿는 것이었다. 순이는 시집을 때에 성황당 앞에서 배례하고 배필이 되기로 맹세한 것을 새삼스러이 행복되게 생각하는 것이었다.

순이는 이 세상 모든 재앙과 영광은 성황님께서 주장하는 줄로만 믿는다. 순이가 처음 시집왔을 때 시어머니는,

14) 임재해, 『민속문화의 생태학적 인식』, 당대, 2002, 242 ~ 243면.

15) 임제 권필(1569 ~ 1612)의 <城隍賦>에는 “아침에 판교원을 떠나 / 남으로 구성된 기는데 / 길 옆에 오래된 성황당 / 숲은 어이 그리 무성하노 // 예로부터 전하기를 / 저 숲에 귀신이 있다 하면서 / 오기는 길손들 / 저저마다 복 받고자 하더라 / 지전을 나뭇가지에 / 시새워 걸어놓고 / 숲속 성황당 향해 / 정성으로 비는 말 // 앞길 가는데 / 만사형통 하옵시여 / 말은 부디 등창나지 말고 / 말발굽 탈도 전혀 없기를”이라 노래되고 있다. 이런 내용을 볼 때 성황당의 정령신앙적 성격이 이미 오랜 것임일 알 수 있다. 주강현, 『우리 문화의 수수께끼』, 한겨레신문사, 1996, 171 ~ 172면.

“우리 집 일은 무엇이나 앞에 계신 성황님께 빌면 순순히 되는 줄만 알아라.”

하고 타이르던 것과, 시중조부모 때에 한번 성황님께 불공했다가, 집이 도깨비불에 타고 말았다는 말까지도 잊혀지지 않았다.

순이는 지금 고무신을 신게 된 것도 틀림없는 성황님의 은덕이라고 믿는다. (325면)

순이는 숲을 팔러 읍내에 내려 간 현보에게 단오에 쓸 고무신과 땡기를 부탁해서 결국 고무신을 얻어낸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성황님의 은덕으로 돌리며 행복해 한다. 정작 선물을 사다 준 남편에 대한 감시는 찾아볼 수 없고 성황님에 대한 감사와 절대적 신뢰만이 부각되고 있다. 이것은 '이 세상 모든 재앙과 영광은 성황님께서 주장하는 줄로만' 믿고 있는 순이의 절대적 신앙에 근거한 것인데, 이러한 성황신앙은 이미 대대로 전승되어 내려오는 집안의 신앙이었으며, 더 나아가 민중 전체의 일반화된 신앙이었다. 그리고 성황신에 대한 절대적 신뢰는 시중조부모代의 不恭으로 인한 재앙이 근거가 되어 더 한층 그 위력을 더하고 있다. 인간의吉凶禍福을 주관하며 삶 전반을 지배하는 성황신앙에 이르면 자연에 대한 인간의 우월은 찾을 수 없다. 오히려 자연에 순종하고 자연과 철저히 하나가 되어야만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는 공생의 원리, 그리고 자연과의 유기적 관계를 유지함으로써만 인간으로서의 지위를 보장받을 수 있는 생태적 원리가 성황신앙의 바탕을 이루고 있다.

현대 과학적 사고로 이해하자면 전혀 논리성을 담보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황당에 대해 순이가 보여주는 절대적 신뢰에는 상식의 세계를 넘어선 무엇인가가 있다. 그러한 순이의 대자연관과 무속적 사유는 다음의 인용문에서 더욱 뚜렷이 나타난다.

(1) “너, 나허구 틀렀다가는 큰일날 줄 모르니?”

“홍! 난 그까짓 큰일 무섭디 않아!”

“정말! 너의 현보가 오늘두 소나무 찍는 것을 내 눈으루 보구 왔는데두?”

“그래, 소나무 찍었으문 와 어때?”

“너, 올봄부터 허가 없이 소나무를 찍었다가는 징역 가는 법이 생긴 줄 모르니?”

“알문 어때? 빌어먹을! 다 성황님이면 고만이지 뭘 그래.”

순이는 순이대로 김주사가 엄포할수록 저도 뻔대었다. 법이라는 것이 은근히 무섭지 않은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김주사 따위에게 슬슬 기고 싶지는 않았다.

그까짓 것 성황당에 축수만 하면 그만이 아니냐? (333면)

(2) 이들이 지나자 산림간수 김주사가 읍내 순사와 함께 현보를 잡으러 왔다. 현보는 아무 말도 못하고 얼빠진 사람처럼 한참을 발부리만 내려다보고 있었고 따라서 김주사만이 뜻 있는 웃음을 빙글빙글 순이에게 건네고 있었다.

순이는 어안이 병병하였다.

“날래 가! 빨리빨리!”

하는 순사의 재촉에 마지못하여 현보는 무거운 발길을 옮겨놓으면서, 글썽글썽 눈물 썬 눈으로 순이를 돌아다본다. 순이는 현보와 눈이 마주치자 울음이 복받쳐올랐다. 그럴 줄 알았더라면 김주사 말을 들어주었던 편이 더 좋았을 걸 하고 후회하였다. 그러나 그보다도 더 큰 후회는 그에게 그 길로 돌아오면서 성황님께 빌기를 잊어버린 것이었다.

그때 성황님께 한번만이라도 빌었다면 오늘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 아니냐? (335면)

천마령에서 아무 부족함 없이 살아가던 순이와 현보에게 닥친 시련은 김주사의 등장을 통해서이다. 평상시 순이에게 눈독을 들이고 있던 산림 감시원 김주사는 현보의 산림훼손을 빌미로 끈질기게 순이의 육체를 요구한다. 그러나 인용문 (1)에 나타나듯이 순이는 법을 앞세운 김주사의 협박마저도 성황님의 신령함에 대한 절대적 신뢰를 바탕으로 대수롭지 않게 넘겨버린다. ‘그까짓 것 성황님께 축수만 하면 그만 아닌가’라는 순이의 신앙관은 현실의 제도와 상식까지도 거부하는 초월적이며 절대적인 신앙관이다. 상식을 초월한 성황에 대한 믿음은 순사를 앞세워 나타난 김주사가 현보를 읍내로 끌고 나가는 장면에서도 계속되고 있다. 김주사는 현보를 잡아들임으로 순이를 위협하고, 현보의 석방을 대가로 순이의 육체를 범할 계획을 세운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벌어졌음에도 순이는 그 원인을 자신이 성황님께 축수하기를 게을리 했기 때문으로 돌리고 있다. 결국 순이의 삶 전반을 지배하는 원리는 상식과 제도를 넘어서 자연의 법칙이다. 즉 자연을 거스를 때 삶의 조화로운 무너지는 것이고, 자연에 순응할 때 무너진 삶이 다시 회복됨으로써 인간과 자연의 상호 유기적 관계는 더욱 확고해진다.

동양적 세계관으로서의 무속적 사유는 자연과 인간의 긴밀한 관계를 바탕으로 하고 있음이 드러났는데 이를 “공생적 가치관”이라 할 수 있다. 공생적 가치관은 무속

신앙의 자연관에 포괄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무속신앙의 자연관은 자연도 살아 있는 생명이라는 전제를 바탕으로 자연도 사람처럼 영성이 있어서 생각하고 사유하는 존재로 인식한다. 그리고 자연도 사람과 마찬가지로 생존권을 지닌 존재이므로 마땅히 그것이 보장되어야 하며, 우주 삼라만상과 자연현상은 유기적으로 얽혀서 존재하는 공동생명체이므로 이를 함부로 헤치거나 오염시켜서는 안 된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¹⁶⁾ 이러한 무속신앙의 자연관을 공생적 가치관의 또 다른 표현으로 간주할 때, 이는 바로 유기체들의 상호 관련성을 중시하는 생태적 인식과 맞닿아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자연을 거부하거나 지배하지 않고 자연과의 상호 관련성을 중시하며 그들과의 공생적 세계를 모색하는 생태적 인식은 순이와 같은 우리 민중의 사유 속에 내재하는 본래적인 것이며, 더 나아가 동양 사상의 기저를 형성한다. 따라서 생태적 위기를 심각하게 진단하고 그 대안적 진리를 모색하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오늘날, 공생적 가치를 지향하는 동양적 생태의식은 그 자체로 큰 의미를 지니게 된다. 다시 말해서 생태 환경의 보전을 위해 지금까지 주도적으로 추구되어 오던 기술문명의 혜택을 전면적으로 포기할 수도 없는 절박한 현실 앞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패러다임의 전환인데, 이는 도구적 가치 지향의 서구적 세계관으로부터 벗어나 자연과의 공생의 가치를 지향하는 동양적 세계관으로의 전환인 것이다.¹⁷⁾ 그리고 한편으로는 서양의 과학 지식 및 기술을 동양적 세계관의 틀 속에서 거시적이고 선택적으로 개발하고 활용할 줄 아는 지혜로움을 발휘할 때 이 문제는 그 해결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3. 건강한 '성적 이미지'와 생태적 인식

문학에 있어서 性은 다양한 이미지를 발산한다. 작가는 성 모티브를 통하여 죽음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 반면에 건강한 생명력을 이미지화할 수도 있다. 절망에 사로잡혔을 때, 혹은 인생이 종말로 치달을 때 인간은 오히려 무절제한 성적 표출을 통해 내적 갈등을 발산시키기도 한다. 그리고 이러한 행위는 결국 파멸을 앞당기게

16) 임재해, 앞의 글, 268면.

17) 박이문, 『문명의 미래와 생태학적 세계관』, 당대, 2000, 206면.

된다. 자신에 대한 내적 불만은 물론, 사회에 대한 불만도 파괴적 성행위를 통해 표출하기도 하는데 이런 모든 행위는 이미 건강성을 상실한 죽은 성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성적 이미지의 표출은 건강한 생명력을 상징하기도 한다. 본래적으로 성은 종족 보존이라는 사회적 기능을 일차적 기능으로 삼고 있다. 세대가 세대를 거듭하는 것, 사회가 그 영속성을 지닐 수 있는 것 등에서는 어떠한 파괴적 속성도 찾아볼 수 없다. 비단 사회적 기능으로서의 성뿐만 아니라 인간 내면의 자유의지, 즉 개성의 실현이라는 개인적 성도 새로운 생명력의 부활이라는 측면에서 건강한 이미지를 포함하고 있다.

소설에 있어서 성적 이미지의 건강성은 생태적 인식과 연결될 때 그 의미의 외연이 더욱 넓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인간 역시 자연의 일부로 여기는 생태적 인식에 이르면 인간의 성은 자연의 건강성과 결부되어 그 자체 생성력을 발휘하게 된다. 이러한 경향이 가장 두드러진 대표적 작가로 이효석을 들 수 있는데 그의 중기 이후의 소설¹⁸⁾을 주목하면 자연의 원초적 미의식을 작품의 중심 소재로 삼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즉 산과 들과, 돼지, 당나귀, 개살구 등의 자연적 요소를 작품의 전면에 등장시키고, 아울러 자연과 하나된 인간의 본연을 찾아나가기에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특히 작품에 드러난 성적 이미지에 대한 세간의 비판적 지적에 대해 “반드시 애욕을 위한 애욕을 그리려는 것이 아니었다. 인간의 본연적인 것, 건강한 생명의 동력과 신비성—이라고 할 것을 추구하고저 하는 그 한 표현으로 애욕의 주제가 뚜렷이 눈앞에 떠 올랐던 것이다”¹⁹⁾는 그의 반박은 건강한 성적 이미지의 표출이 ‘인간의 본연’을 탐구하는 방법이 될 수 있음을 주장하는 것이다. 즉 자연의 원초적인 아름다움에 인간의 ‘건강한 생명의 동력과 신비성’을 지닌 인간의 애욕을 조화시켜 소설로 형상화함은 단순히 말초적 성에 집착함이 아니라는 것이다. 오히려 그것은 인간의 건강한 생명력을 자연적 이미지에서 찾으려는 생태적 인식으로 평가할 수 있다.

18) 이효석의 작품세계는 크게 세 단계로 구분할 수 있는데, 전기는 경향과 성향의 동반자 작가로 불리던 시기의 단편을 이름이며, 중기는 서정성 짙은 향토물을 소재로 한 단편들, 후기는 도시를 배경으로 한 일련의 단편 및 중, 장편을 포함하는 시기이다. 안미영, 『이효석 장편소설에 드러난 性과 예술의 교호관계』, 『문학과 언어』 제 20집, 1998. 5, 241면.

19) 이효석, 『건강한 생명력의 추구-비속하게 감상함은 독자의 허물』, 『조선일보』, 1938. 3.6.

이효석이 지적한 성의 건강한 생명력은 〈성황당〉에서도 찾을 수 있다. 〈성황당〉은 순이와 현보의 원초적 성이 자연의 속성과 결부되어 건강한 생명의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즉 더럽혀진 성이 아니라 자연과 유기적 관계를 지닌 생성력의 성을 통해 생태적 인식을 발견할 수 있다.

현보는 순이의 허리를 껴안았다. 순간 술 냄새가 물씬 얼굴에 끼었었다.

“아이구, 망칙해라!”

“망칙은 무슨 망칙, 아무개두 보는 사람 없는데!”

하고 현보는 성난 범처럼 뉘벼들었다. 순이는 고무신 사다 준 것만도 다행으로 여겨 아무 반항도 하지 않았다.

어느덧 열여드렛달이 천마재 위에 비죽이 솟았다. 산속은 괴괴하다. 나무 사이로 세차게 흐르는 달빛이 더욱 적막을 돋우었다. 숲 위에서 반짝이는 별들만이 순이와 현보를 지키고 있었다.

어디선가 간혹 접동새 울음이 들려왔고, 그것이 그치면 알지 못할 산짐승이 짝을 찾는 듯 구슬프게 우는 소리뿐이었다. (324면)

순이와 현보가 뒤엉킨 애욕적 장면은 천마령의 자연적 요소와 어우러져 왕성한 생명력을 발휘한다. 장터에 간간 남편의 늦은 귀가를 애타게 기다리던 순이가 얼큰이 술이 취해 돌아오는 현보와 숲 속에서 벌이는 애정 행각은 그리 불경스럽지 않다. 접동새와 온갖 산짐승의 구슬픈 울음소리만이 간혹 들려오는 괴괴한 숲 속에서 한 마리 짐승처럼 뒤엉킨 두 사람의 모습은 보름을 갓 지난 달빛과 어둠 속에서 그 빛을 더욱 발하는 밤하늘의 별빛이 조용히 지켜보고 있다. 자연과 완전히 하나가 되어 버린, 무엇이 자연이고 무엇이 인간인지의 경계마저 모호해져버린 유기적 뒤엉킴이 거친 호흡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이들의 애정은 김주사와 칠성이로 대표되는 반생태적 인물들을 통해서 더욱 그 순수함을 발한다. 산림 감시원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끊임없이 순이의 육체를 탐하고, 자신의 탐욕을 달성하기 위해 법의 힘을 빌어 현보를 감금시킨 김주사의 행위와 현보의 부채를 틈타 물질로 순이를 피어내는 칠성이의 행위는 모두 자연을 거스르는 반생태적 행위들이다. 이들은 모두 순이의 육체를 훼손시키기 위한 파괴적 성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순이는 김주사의 유혹을 끝까지 뿌리치고, 또한 칠성이를

따라 나섰다가 이내 천마령으로 도망쳐옴으로써 끝까지 성의 순수성을 유지시켜 나간다.

결국 〈성황당〉은 본연의 성이 그 건강성을 상실하지 않음으로써, 그리고 그것이 자연과 하나된 친화적 이미지를 나타냄으로써 애욕을 위한 애욕이 아니라 건강한 생명의 동력으로 작동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문학에서 자주 등장하는 성적 이미지도 그것의 건강성을 상실하지 않을 때 무한한 생성력을 발휘하는 생태적 속성을 지니게 된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준다. 따라서 문학의 생태적 인식은 굳이 환경을 직접적으로 거론하지 않더라도 자연의 속성인 생명력을 담지하고 있는나의 여부에 따라 이야기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면에서 〈성황당〉의 경우도 성적 이미지의 건강성과 자연과의 유기적 관련성을 근거로 생태적 인식을 논할 수 있을 것이다.

Ⅲ. 결론

본고는 인간과 자연의 하나됨에 큰 틈이 벌어진 오늘의 생태적 위기가 급기야는 인류의 종말로 치닫게 될 것이라는 경고에 귀 기울이기 시작한 인문학적 성찰에 바탕을 두었다. 그 동안 성장 중심의 무분별한 개발논리가 인간과 자연이 영원히 공존할 수 없는 대립과 갈등을 조장하였다면, 환경 보전에 기반을 둔 다양한 생태 운동들과 인문학에서의 생태적 인식은 다시 하나됨을 위한 화해의 몸짓으로 이해될 수 있다. 특히 문학에서의 생태학적 접근은 문학의 갖는 효용론적 기능을 굳이 말하지 않더라도 그 파장이 지대함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의미를 전제로 본고에서는 정비석의 〈성황당〉에 드러난 생태적 인식을 고찰함에 목적을 두었다. 먼저 〈성황당〉에서 중요한 공간으로 제시된 천마령의 공간적 이미지와 거기에 혼용된 생태적 인간의 어울림을 통해 자연과 인간의 유기적 관계를 살펴보았다. 즉 세속의 매가 묻지 않은 자연 친화적 공간과 더불어 자연과의 경계가 모호한 생태적 인물의 하나됨을 통해 우리가 지향해야 할 생태적 세계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동양적 세계관, 즉 무속적 사유를 통한 〈성황당〉의 생태적 인식을 찾아볼 수 있었다. 자연에 가미된 정령신앙을 바탕으로 한 우리의 무속적 사유는 자연의 도구적 효용가치로 보는 서구의 물질적 가치관을 극복할 수 있는 중요한 대안이 될 수 있다. 여기에는 인간이 자연에 군림하는 반생태적 인식이란 끼어들 자리가 없는데 성황님에 대한 순이의 절대적 신뢰와 경외를 통

해 그러한 특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 끝으로 소설에 드러나는 성적 이미지를 통해서도 생태적 인식을 발견할 수 있었다. 성이 본연의 건강성을 잃지 않을 때 그것은 오히려 건강한 생성력으로 발휘될 수 있는데 김주사와 칠성이의 파괴적 성에 끝까지 순수성을 잃지 않는 순이의 모습에서 무한한 생성력을 발휘하는 생태적 속성을 찾을 수 있었다.

〈성황당〉은 최근의 생태소설이 그러하듯 환경과 생태계의 파괴를 직접적이고도 사실적으로 서술하거나, 혹은 이러한 파괴의 원인인 서구의 물질주의나 인간 중심주의, 혹은 인간의 무의식적 욕망 등에 대한 심도 깊은 성찰이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소설은 아니다. 그러나 생태 위기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보여주지는 않더라도 그 위기의 극복에 중요한 가치를 내포하고 있는 문학이라는 보다 광의의 정의에 기반하여 문학 생태학의 지평을 넓히고자 함에 논의의 초점을 맞추었다. 이는 우리 문학 속에 본래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자연적 속성이 오늘날의 생태적 인식과 만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에 따른 것이며, 한편으로는 서구의 물질주의가 배태한 생태적 위기의 대안으로 동양적 인식이 주목받고 있는 현실에 착안한 것이다.

핵심단어 : 공간, 무속신앙, 문학 생태학, 생태적 인식, 성(性), 성황당, 심층 생태학

참 고 문 헌

- 경성대학교 인문학연구소 엮음, 『인문학과 생태학』, 백의, 2001.
곽경숙, 「김동리 소설에 나타난 생태학적 상상력」,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4, 1999. 2.
김동욱 외, 『한국민속학』, 새문사, 1999.
김성진 외, 『생태문제와 인문학적 상상력』, 나남출판, 1999.
김영석, 『도와 생태적 상상력』, 국학자료원, 2000.
김용민, 「생태사회를 위한 문학」, 『문예중앙』, 2000년 7월호.
김육동, 『문학생태학을 위하여』, 민음사, 1998.
김태곤, 『한국민간신앙연구』, 집문당, 1994.

- 박원기, 『기독교 사회 윤리 이론과 실제』,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96.
- 박이문, 『문명의 미래와 생태학적 세계관』, 당대, 2000.
- 박희병, 『한국의 생태사상』, 돌베개, 2002.
- 안미영, 「이효석 장편소설에 드러난 性과 예술의 교호관계」, 『문학과 언어』 20, 1998. 5.
- 이남호, 『녹색을 위한 문학』, 민음사, 1998.
- 이남호·김원중·우찬제, 「환경 문제와 문학」,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4, 1999. 2.
- 이소영, 「황순원 소설에 나타난 생태의식 연구」,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4, 1999. 2.
- 이효석, 「건강한 생명력의 추구-비속하게 감상함은 독자의 허물」, 『조선일보』, 1938. 3. 6.
- 임재해, 『민속문화의 생태학적 인식』, 당대, 2002.
- 주강현, 『우리 문화의 수수께끼』, 한겨레신문사, 1996.
- 한국 불교환경 교육원 편, 『동양 사상과 환경 문제』, 모색, 1996.
- 한국기호학회 엮음, 『생태주의와 기호학』, 문학과지성사, 2001.
- 한국현대소설연구회 편, 『현대소설론』, 평민사, 1995.
- Bachelard, Gaston, The Poetics of Space, 박광수 역, 『공간과 시학』, 민음사, 1990.
- H. Mohr, Natur und Moral: Ethik in der Biologie, Darmstadt, 1987.
- L. White, Jr., "The Historical Roots of Our Ecologic Crisis", Science, Vol. 155, 1967.

Abstract

A Study on Ecological Recognition Revealed by Jeong, Bi-Seok' s
(Seonghwangdang)

Cha, Bong-Jun

This work is aimed at contemplating the ecological recognition revealed by Jeong, bi-seok through the novel, 〈Seonghwangdang〉. 〈Seonghwangdang〉 isn't the novel that describes breakdown on environment and ecosystem directly and realistically such as recent other ecological works. And that it doesn't identify the cause of the destruction through deeply introspection such as what so called western materialism, man-centered or man's unconscious desire. Though it doesn't reveal the clear understanding about the ecological crisis, this work is focused on broadning literature-ecology based on widen-definition including important value for getting over. This theme is expected to make both the natural characteristics and the today's ecological understanding meet with inherently our inborn literature. And it is also paid attention to reality emphasizing confucious recognition for the disaster by western materialism.

The main subject is divided into the three part of theme.

In the begin with, it is organic relationship that indicates harmony between ecological men and spacious images through 'cheon ma ryung', 〈Seonghwangdang〉's important spacious background. That is we are able to figure out our own world — ecological world proceeding one for one — by harmonizing the friendly-natural space with ecological man in vague line.

Second, we can discover the ecological understanding through confucious world view namely, shaman consideration in 'Seong hwang dang'. Maybe the shaman speculation based on the superstitious belief will be the solution for overcoming western materialistic view considering it as natural's instrumental utility-value. In

this section of the structure, anti-ecological recognition is not allowed to reflect its arrogant attitude against 'mother nature'. Which is discovered by soon-i's absolute faith and respect for master of seong-hwang.

Last but not least, this recognition is also revealed by sexualistic image. When the sexualism keeps its sound effect, it is rather mightier sound creating-ability than we've expected. So, we will be able to find out the ecological characteristics emitting infinite creating-ability through soon-i's continuous struggle for Mr. Kim and chil-sung's destructive sexuality.